



세계기부환경지수 2025 요약본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INDIANA UNIVERSITY



요약

세계기부환경지수(GPEI)는 자선 환경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글로벌 리더들이 자선 활동의 능력을 최대화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연구 도구입니다.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관대함은 여전히 보편적이며, 자선은 문화와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GPEI는 이러한 활동의 동기와 장애 요소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2013년에 처음 시작된 이 연구는 173명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95개국의 자선 활동 환경을 평가하는 유일한 글로벌 협력 연구로, 개인과 자선 조직들(PO: Philanthropic Organizations)이 기부와 자선 기부금을 받을 때 마주하는 인센티브와 장애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2025 GPEI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면서 혁신,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인플레이션 상승, 대규모 자연재해, 기록적인 지구 온도 상승, 무력 충돌, 그리고 대규모 인구 이주를 경험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자선활동은 이러한 각각의 변화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 현재 자선활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목할 만한 변화들로는 세대 간 부의 이전, 정치의 양극화, 공적개발원조의 감소, 그리고 국가 간 기부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적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회와 도전이 계속 전개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자선활동의 역량과 능력이 시험받고 있으며, 2025 GPEI는 이에 대한 지역적 및 국가 간 관점을 제시합니다.

2025 GPEI는 포함된 국가중 61%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자선활동 환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문화 환경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호의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해외 기부 활동을 위한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간의 흐름과 지역에 걸쳐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관찰되며, 일부 국가와 지역은 개선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다른 곳들은 새로운 도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변화들에 대한 개요는 다음 페이지에 제공되며, 기타 중요한 변화들은 본 보고서의 본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벌 보고서는 주요 연구 결과와 글로벌 시사점을 다루고 있으며, 더 심층적인 발견은 <https://globalindices.indianapolis.iu.edu>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2025 GPEI 컬렉션의 15개 지역 보고서와 95개 국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25 GPEI는 인디애나 대학교 윌리 패밀리 필란트로피 스쿨과 함께 2022년 및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지수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허드슨 연구소에서 2015년과 2013년에 발표한 두 번의 '자선 자유(Philanthropic Freedom)'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 세계기부환경지수(GPEI) 개요

95개 국가 포함

2025 GPEI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95개 국가의 자선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을 측정합니다.

6개의 평가 요소

2025 GPEI는 다음 여섯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자선활동 환경을 평가하며, 1(가장 불리함)부터 5(가장 유리함)까지의 척도를 사용합니다.

1. PO 운영의 용이성
2. 세제 혜택
3. 국가 간
4. 정치 환경
5. 경제 환경
6. 사회문화 환경

조사대상 국가의 3/5가 우호적 환경을 보고함

포함된 국가의 61%가 우호적인 자선활동 환경(3.50 점 이상의 점수)을 보고합니다.

GPEI 글로벌 평균 점수 3.60

6가지 요소 중 자선단체 운영의 용이성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4.01점), 해외 기부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낮습니다(3.40점).

지역 비교

15개 포함 지역을 비교할 때, 서유럽이 6가지 요소 모두에서 평균 점수가 3.5점을 훨씬 상회하여 가장 우호적인 자선활동 환경을 제공하며, 라틴 아메리카는 6가지 요소 중 5가지에서 평균 점수가 3.5 점 미만으로 가장 도전적인 자선활동 환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나타난 자선단체와 디지털 적응 간의 협력이 주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적응에는 하이브리드 및 가상 업무 환경, 모금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프로그래밍, 그리고 온라인 인플루언서의 문화적으로 적절한 활용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트렌드

기후 변화와 전문화가 포함된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자선 부문과 자선 단체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온라인 크라우드펀딩과 AI의 혁신적인 활용 및 테스트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입니다. 소수의 국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후 필란트로피

우호적인 자선활동 환경은 일반적으로 환경 행동과 기후 개혁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GPEI 전문가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 정책 개혁을 다루는 자선단체들의 장벽을 주목합니다.

- 1)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
- 2) PO가 체계적인 솔루션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부족

자선활동 환경의 변화 추이

2018 GPEI (2014-2017), 2022 GPEI (2018-2020), 2025 GPEI (2021-2023) 비교

77개 국가 조사 대상

2025 GPEI에 참여한 95개 국가 중 77개 국가는 2018년, 2022년, 그리고 2025년에 걸쳐 조사되어 시간에 따른 비교가 가능합니다.

평균 GPEI 글로벌 점수의 안정성

이 77개 국가에 대한 평균 GPEI 전 세계 점수는 시간에 걸쳐 비교적 일관적입니다.

- 2018 GPEI 3.65
- 2022 GPEI 3.65
- 2025 GPEI 3.63

개선되는 정치적 환경, 악화되는 경제 환경, 그리고 국가 간의 지속적인 도전

6가지 요소를 시간에 걸쳐 비교할 때, 정치 환경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3.42점에서 3.52점), 해외 기부 평균 점수는 가장 급격한 하락을 했습니다(3.58점에서 3.42점). 경제 환경 요소는 2018 GPEI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2 GPEI에 비해 평균 점수가 하락했습니다(3.56점에서 3.44점).

사회문화 환경의 안정성

평균 사회문화 환경 점수는 세 기간 모두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종교적 영향과 깊이 뿌리박힌 가치와 전통이 기부 관행과 행동의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사항

2018 GPEI 이후 각 요소별 점수로 지역을 비교하면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3.07점에서 3.90점)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3.33점에서 3.75점) 모두 자선단체 운영의 용이성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함께 해외 기부를 처리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3개 지역(2.81점, 2.77점, 2.89점)에 포함되었습니다.
- 사회문화 환경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개선되었고(3.33점에서 3.75점) 발칸 지역에서는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3.18점에서 3.67점).

권고사항

2025 GPEI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각 국가와 지역에서 자선활동 환경 개선을 권고합니다. 아래는 글로벌 차원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6가지 권고사항 목록입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지역적 맥락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명확성 제고 및 제한 완화를 통한 법적 체계 개선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기존 법률의 명확성과 자선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의 최소화를 통해 더 활성화되고 예측 가능한 운영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디지털화를 포함한 행정 절차 간소화

많은 전문가들은 자선활동을 활성화하고, 단체를 지원하며 정부 관료와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 보고, 해산 등 다양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권고합니다.

3. 자선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부의 투명성 지원

정부와 자선단체는 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자선 기금의 송금이나 수령을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들어 자선 기부를 위축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요구사항의 비례성 고려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은 대규모 자선단체에게는 행정 부담이 감당할 만하지만 소규모 비영리단체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관찰하며, 조직의 규모와 실제 역량에 따라 행정 요구사항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5. 기후 변화 등 공통 과제에서 정부와 자선활동 간 협력 강화

협력이 자선활동과 정부가 공통된 과제에 대한 공동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후 변화를 다루기 위한 정부와 자선단체 간의 효과적인 파트너십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6. 향상된 자선활동 인프라를 통한 비영리 조직의 역량 구축

많은 국가 및 지역의 전문가들은 기존 기부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기술 훈련, 인증 프로그램, 디지털 도구 및 플랫폼, 연구, 그리고/또는 중앙화된 네트워크나 전문 협회 등을 포함합니다.

GPEI 사용법

GPEI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정책과 관행을 개선하는 네 가지 활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인식 제고	글로벌 보고서 및 해당 국가·지역 보고서 검토	자선활동 환경에 대한 원탁토론을 위해 주요 자선 관계자, 자선단체, 학계, 정책결정자 초청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정보 공유 및 후속 논의 진행
정책 영향력 행사	해당 국가 보고서 검토	자선활동 환경의 장점과 제약요인 파악 및 분석	지역·글로벌 보고서의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현지 맞춤형 해결책 개발 및 새로운 정책 수립
기금 조성	해당 지역·국가 보고서 검토	새로운 동향과 운영상 과제 파악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적절한 기회를 활용하는 효과적이고 상황에 맞는 후원 전략 및 정책 수립
전략 개발	지역 내 자선단체 간 회의 개최	국경 간 자선활동을 포함한 자금 조달의 지역적 과제와 기회 검토	지역 정부, 기업, 자선단체와 함께 미래 지향적 해결방안 모색

어떻게 인덱스를 사용하시나요? GPEI 글로벌, 지역 또는 국가 보고서와 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indices@iu.edu로 공유해주세요.

인디애나 대학교 릴리 패밀리 필란트로피 스쿨

인디애나 대학교 릴리 패밀리 필란트로피 스쿨은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혁신가이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학생과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상을 개선하기 위한 자선활동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본 대학원은 학술, 연구, 국제 프로그램과 더불어 모금 학교(The Fund Raising School), 신앙과 기부 레이크 연구소(Lake Institute on Faith & Giving), 다양성 필란트로피 메이스 패밀리 연구소(Mays Family Institute on Diverse Philanthropy), 여성 필란트로피 연구소(Women's Philanthropy Institute), 그리고 무슬림 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Muslim Philanthropy Initiative)를 통해 자선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현재 학사, 석사, 자격증, 박사 프로그램에 등록 가능하며, 필란트로피 리더십 전문 박사 과정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PHILANTHROPY.IUPUI.EDU에서 확인하세요.

 @IUPHILANTHROPY

 /IULILLYFAMILYSCHOOLOFPHILANTHROPY

 @IU.PHILANTHROPY

 /IUPHILANTHROPY

 /인디애나-대학-릴리-가족-기부학교

